

中共의 大衆操作에 관한 研究

—毛澤東의 커뮤니케이션 戰略을 中心으로—

高 性 俊

I 序 論

執權初期부터 中共은 落後된 經濟와 前近代的인 社會·文化로부터 「社會主義에로의 移行」을 위한 社會動員에 주력했다. 社會主義國家建設에 직면하여 中國의 共產主義者들은 무엇보다도 국민들로 하여금 그들의 政治體制야말로 國民을 支配할 權威와 能力을 갖고 있다고 믿게 하는 政治化作業을 「暴力에 의한 強制」와 「說得커뮤니케이션에 의한 大衆操作」을 통해 대대적으로 展開했다.

그런데 中共은 經濟建設과 政權의 強化를 동시에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國民을 「革命的 이데올로기」로써 共產主義的 人間으로 改造해야만 했다. 이 점에서 中共은 「마르크스」主義理論을 實踐에 옮긴 最初의 國家인 蘇聯의 모델을 그대로 授用하여 테러와 說得커뮤니케이션을 交互적으로 使用하면서 共產主義的 人間(새로운 中國人)造型을 위한 大衆操作을 실시했다.

그러나 中共은 大衆操作을 初期부터 소비에트經驗에 의거하여 全人民을 對象으로 展開했으나 目標로 삼는 「共產主義的 人間型」과 그 實踐過程에서 蘇聯과 相異했다. 毛澤東은 스탈린의 方法과는 달리 社會主義建設을 資本主義 經濟制度의 붕괴라는 制度的 革命에 滿足하지 않고, 人間革命을 可能的한 것으로 보았다.

毛澤東은 歷史發展에 있어서 原動力은 物質이 아니고, 人間의 意志라고 보았다.

思想이 行動을 決定한다는 「政治 및 思想, 人間 第一主義」라는 毛澤東 思想의 政治敎化的 論理는 다음과 같은 「人民日報」의 社說에서 잘 說明되고 있다.

「作業은 人間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리고 人間의 行爲는 그의 思考에 의해 支配되어진다. 올바른

政治意識이 缺如된 사람은 精神이 없는 사람과 다를바 없다. 만일 政治가 모든 일에 優先하지 않는다면, 즉 프롤레타리아 이데올로기가 優位를 차지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方向을 잃고 만다. 우리는 언제나 政治를 앞세워야 하고 政治的 이데올로기 作業이 모든일에 先行되어야 함을 主張한다. 우리가 우리의 政治的 이데올로기 課業을 철저히 內延化하는 경우에만 비로소 모든 일을 成功的으로 수행할 수 있는 보장을 받게 된다.]」¹⁾

이와 같은 『政治先行(原語「政治掛帥」)』主義는 中共이 그 體制의 存續과 權力強化에 있어 「테리」에 의한 強制보다는 「人民에 대한 催眠的인 政治教化」(mass hypnotic political indoctrination)에 가까운 大衆說得(mass persuasion)에 더욱 依存함을 뜻한다.

毛澤東은 모든 人間을 그가 處한 階級的 背景과는 상관없이 共產主義에 대한 潛在的 改宗者로 보았다. 延安時代 以來로 中國共產黨의 獨特한 大衆指導方法인 群衆路線은 말하자면 大衆의 「무한한 創造力」과 共產主義에 대한 大衆의 「무진장한 熱意」를 浪漫的으로 信賴하는 毛澤東의 特有한 革命的 大衆主義의 具現인 것이다.²⁾

그러므로 中共의 指導者들은 群衆路線方法의 大衆政治運動(mass political campaign)을 통하여 人民大衆에 대한 大衆操作을 전개하여 政治·社會·文化·藝術등 모든 영역에서 毛澤東思想에 立脚한 높은 政治意識을 扶植하는 것이 中共의 早速한 社會主義建設의 主된 條件이라고 믿고 있다. 따라서 毛澤東에 의하면 人民大衆이 자신의 思想에 의하여 改造됐을 때 中國革命은 성공리에 수행된다는 것이다.

「主意主義」(voluntarism)와 「人民主義」(populism)에 대한 不動의 信念을 가진 毛澤東은 「共產主義者造型」을 위해 「文化大革命」을 비롯한 수많은 群衆路線方式의 整風運動을 展開했다.

여기서 「整風」이란 『思想態度(原語「思想作風」)와 工作態度를 整頓하는 것』이며, 『全黨과 全人民이 批判(criticism)과 自己批判(self-criticism)의 方法을 통해 毛澤東思想을 學習하여 훌륭한 共產主義者가 되는 것』을 意味한다.³⁾

本論文의 研究目的은 中共의 大衆操作이 지향하는 「새로운 中國人」에 대한 政治的 意味와 이러한 「새로운 中國人」形成에 있어 커뮤니케이션 戰略을 파악하고 그 관계를 밝혀보는 것이다.

1) [人民日報], 1961년 11월 11일. Frederick T.C. Yu. *Mass Persuasion in Communist China*(New York: Praeger, 1964) p.6. 재인용

2) 群衆路線의 기본적 概念은 毛澤東의 論文〈關於領導方法的若間問題〉(1943년 6월 1일)와 〈組織起來〉(1934년 11월 29일)등에서 定式化 되었다. 群衆路線의 基本原理는 것체는 [大衆속으로부터 나와 다시 大衆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必須是從 群衆中來 到群衆中去)이며, 둘째는 「大衆속에 들어가 大衆에게서 배우는 것」(走到群衆中間去, 向群衆學習)이다. 「毛澤東著作選集 甲種本(下) (北京·人民出版社. 1964) p.294, p.306. 參照.

3) 毛澤東. “在中國共產黨全國宣傳工作會議上的講話” 「毛澤東選集」 op. cit., p.505. 「整風就是頓思想作風和工作作風」

따라서 研究는 毛澤東에 의해 展開되어온 大衆操作 즉 「새로운 共產主義의 人間型」이 무엇을 뜻하며, 이것이 어떠한 커뮤니케이션戰略에 의해 實踐되었는가? 라는 두가지 側面에 焦點을 두고 있다.

Ⅱ 中共의 大衆操作과 毛思想

1. 中共의 大衆操作의 目標

人類社會는 각기 그 社會의 價値·規範·象徵등 일정한 文化에 대한 共通된 理解를 기반으로 結合되어 있다. 이러한 共通된 理解라는 것은 本來 주어진 生得的인 것이 아니라 個人의 生活 속에 習得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過程을 社會化라고 하며 이 過程속에서 個人은 知識·技術을 習得하며 나아가 개인들로 하여금 集團과 社會의 成員으로서 어느 程度 影響력을 행사하면서 參與할 수 있게 하는 일정한 性向을 갖게 한다.⁴⁾

이러한 면에서 파우엘과 얼몬드는 政治社會化라는 것은 『政治文化가 유지되고 變化되는 過程』으로 規定하고 이러한 기술의 遂行을 통하여 個個人을 政治文化에 接하게 되고 따라서 政治對象에 대한 그들의 定向이 形成된다고 보고 있다.⁵⁾

어느 時代나 나라를 막론하고 모든 政治體制는 그 構成員들을 政治文化로 유도하는 過程을 實施해 왔고, 지금도 전개하고 있다.⁶⁾ 그러기에 政治社會化는 사람들에게 政治定向과 行態類型을 教育시키는 教師의 입장인 政府와 이것을 學習하는 市民이라는 相互補完的인 要素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民主主義 政治體制에서는 市民들이 그 사회의 지배되는 정치적 태도와 가치를 깨우치는 과정에 政府가 主導的인 역할을 하지 않는다. 오히려 家政이나 學校, 그리고 同僚集團등을 통하여 恣意的으로 政治社會化가 이루어 진다. 또 강조하는 政治的 人間型은 權利와 의무를 잘 調和하는 合理的인 決定者로서의 個人이다.

반면에 共產主義 國家에서는 國家, 즉 指導者와 黨에 의해서만 政治社會化가 수행되고 있다.

4) Robert E. Dowse and John A. Hughes. *Political Sociology* (London: John Wiley and Sons, 1972). p.179.

5) Gabriel A. Almond and G. Bingham Powell, Jr. *Comparative Politics: A Development Approach* (Boston: Little, Brown 1966). p.42.

6) Robert E. Dowse and John A. Hughes, op. cit., p.78.

국가는 「마르크스·레닌主義」에 의거하여 政治社會化의 內容을 決定하는데서 부터 諸機關들의 統制에 이르기까지 모든 過程에 직접적으로 介入하고 있다. 國民은 다만 이들에 의해 해석되어진 政治的 價値觀과 規範을 받아들이는 受容者에 不過하다. 이들의 하루하루 生活은 國家에 의해 作成되어 전달되는 압도적인 多量의 政治메시지의 地미속에서 영위되고 있는 것이다.” 또 이들에게 要求되는 人間像은 어디까지나 集團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個人에 強調를 두며, 그가 소속해 있는 集團에 대한 義務와 服從을 무엇보다도 중시한다.

결국 共產主義國家의 「政治社會化」는 國家가 黨엘리트에 의해 해석되어진 「마르크스·레닌主義的 世界觀」을 國民에게 教育시키는 大規模의 一方的 宣傳과 教條註入過程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共產主義 政治體制의 政治社會化 過程을 大衆操作이라고 부르는 所以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지난 半世紀에 걸쳐 共產主義體制는 광범위하게 분리된 國家들을 政治敎化和 大衆組織을 利用하여 凝聚力있는 擬似原初集團(cohesive pseudo primary community)으로 結合하려고 시도해 왔으며, 모든 共產主義運動의 目標은 國家全體를 指導者나 黨의 理念에 忠誠·獻身토록 하는 大單位의 家族으로 만드는 것이다.⁷⁾ 이것은 共產主義體制가 그 國內外 政策을 遂行함에 있어서는 大衆의 協力 나아가서는 犧牲이 要求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共產主義國家는 政治的 테러와 秘密警察과 같은 強壓의 方法을 利用하여 反對派를 抑壓함과 同時에 이에 못지않게 마르크스·레닌主義를 大衆說得에 의해 國民에게 강요하여 소위 「共產主義的 人間」을 「鑄造」하려고 시도해왔다. 그리하여 「共產主義的 人間造型」이라는 空前의 大實驗을 成功의으로 끝내기 위해서 共產主義者들을 輿論을 統制하고 매스커뮤니케이션에 대한 完全한 獨占, 그리고 大衆組織에 의해 대중들을 動員시키고 있는 것이다.

人類史上 最初の 共產主義國家인 蘇聯은 社會主義建設을 資本主義制度의 打破는 물론 農業集團化, 그리고 工業化를 통해 達成하려 했다. 따라서 스탈린은 레닌에 이어 單獨指導權을 확보한 後 그 權力의 기반을 공고히 하고 經濟發展을 이룩하는 길은 오직 大衆의 支持에 달려 있다고 보았으며, 이를 위해 大衆을 政治化(politicization)시키는데 모든 努力을 기울였다. 대중의 支持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暴力에 의한 強制」의 분위기 속에서 大衆을 마르크스·레닌主義라

7) Gayle Durham Hollander, *Soviet Political Indoctrination; Development in Mass Media and Propaganda Since Stalin* (New York: Praeger, 1972). p.5.

8) Ithiel De Sola Pool, "Communication in totalitarian Countries" Wilbur Schramm, et. al (eds), *Handbook of Communication* (Chicago Rand McNally College Publishing Co., 1973). p.462.

9) Frederick C. Barghoon, *Politics in the U.S.S.R.* (Boston: Little Brown and Co., 1966). p.28.

는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주장시켜 「새로운 소비에트人間」을 鑄造하는 大衆操作에 依存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스탈린 내지 소련 政府가 요구하는 「새로운 소비에트人間」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人間인가? 소련當局에 의하면 「새로운 소비에트人間型」이란 「精神的 富裕, 道德的 純潔, 身體的 完全性이 調和된 人格」을 갖추었으며, 새로운 소비에트建設에 적극적으로 參與하는 「專門 技術人」으로서의 共產主義者라고 한다.⁹⁾

한편 소련의 大衆操作은 政治社會化의 기관(agents)들과 大衆統制的 機制(mechanism)를 통해 소비에트國家에 必要的 行動과 性格 및 人格의 特性을 형성해 왔다. 幼兒期에서 青年期에 이르기까지 다각적으로 이루어지는 大衆操作은 家庭, 託兒所, 學校는 勿論이고 黨의 靑少年 機關과 共產主義年同盟(komsomol)등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또한 一般市民에 대한 大衆操作은 黨의 宣傳煽動部(agitprop)가 中心이 되어 모든 매스미디어의 獨占과 統制를 통해 實施되고 있다.¹⁰⁾

그러나 中共은 大衆操作을 初期부터 소비에트經驗에 의거하여 全人民을 對象으로 展開했으나 目標로 삼는 「共產主義的 人間型」과 그 實踐過程에서 蘇聯과 相異했다. 毛澤東은 스탈린의 方法과는 달리 社會主義建設을 資本主義 經濟制度의 붕괴라는 制度的 革命에 滿足하지 않고, 人間革命을 可能한 것으로 보았다. 이렇듯 毛澤東은 歷史創造에 있어서 人間意志의 積極的 役割을 重視했다. 毛澤東에 의하면 人間大衆이 자신의 思想에 의하여 改造되었을 때 中國革命의 완수를 保障한다고 믿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中共에 있어 「共產主義的 人間型」은 「革命的 熱意」와 「무궁무진한 創造力과 知慧」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毛澤東思想으로 무장된 人民을 意味한다. 이것은 社會的 存在가 意識을 決定한다는 마르크스主義의 經濟決定論的 基本假定에서 벗어나 意識構造의 改革에 의해 下部構造인 경제제도를 強化하고 發展시킬 수 있다는 主意主義的 면모를 엿볼 수 있게 하는 것이라 하겠다.

毛澤東은 모든 人間을 그가 處한 階級的 背景과는 상관없이 共產主義에 대한 潛在的 改宗者로 보았다. 그러나 人間이 政治的 教育을 通하여 자신의 政治的 立場과 役割을 인식하고 行動하는 共產主義者가 될 수 있다는 毛澤東의 人間觀은 獨創的인 것은 아니다. 설사 毛澤東이 否認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政治와 教育을 密接하게 연결시켜 人性을 「鑄造」할 수 있다는 儒敎的 樂觀主義의 影響인 것이다.¹²⁾ 特히 人間은 教育에 의해서만 자신의 社會的 役割을 올바르게 파악하며, 이를 수행한다는 儒敎的 傳統은 毛澤東으로 하여금 人間에 의한 「人間改造」라는 무한

10) Hollander op. cit., pp.10~24.

11) James R. Townsend *Political Participation in Communist China*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7). p.99.

12) 崔明, 現代中國의 理解 (서울: 玄岩社, 1975). pp.14~25.

한 가능성을 가지게 했으며, 이것을 全人民에 대한 大衆說得과 操作으로 이룩하려 했다.

延安時代 以來로 中國共產黨의 獨特한 大衆指導方法인 群衆路線은 말하자면 大衆의 「무한한 創造力」과 共產主義에 대한 大衆의 「무진장한 熱意」를 浪漫的으로 信賴하는 毛澤東의 特有한 革命的 大衆主義의 具現인 것이다. 이렇듯 毛澤東은 大衆의 潛在的인 힘에 대한 確信을 가지고 있었고, 群衆路線은 政治過程의 모든 側面에 大衆의 直接的인 參與를 前提하는 것이며, 大衆이라는 集團的인 힘에 영광을 돌리자는 것이다.

그러기에 中國人民은 밝은 내일을 낳고 영광된 미래를 자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오늘의 困難을 克服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最大限의 速度로 社會主義 建設을 強行하는데 있어 資本·技術 등의 不足을 소위 「革命的 熱意」에 넘치는 人力을 動員하여 메꾸고자 하는 「變形된 아시아의 近代化 發展論」에 立脚해 있다고 할 수 있다.¹³⁾ 卽, 政治思想敎養을 통한 大衆操作方式에 의해 人民大衆을 不斷히 政治敎化시켜서 그로부터 產出되는 「무한한 創造力」과 「무진장한 熱意」를 社會主義建設의 에너지로 投入하려는 精神刺戟의 動員方式인 것이다.

中國共產黨은 人間의 意志를 強調한 點에서 「主意主義的」이고 勞動者와 農民을 強調한 點에 「人民主義的」인 毛澤東의 論理를 다음과 같이 表現하고 있다.¹⁴⁾

『機械는 人間이 만들고 人間이 움직이는 것이다. 物質的 諸手段의 生産은 人間의 努力에 의해서 비로소 實現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모든 일에 있어 人民大衆의 主觀的 能動性이야말로 위대한 原動力이다.』

이렇듯 毛澤東이 大衆操作에 의하여 改造하고자 하는 人間型은 무한한 創造力과 무진장한 熱意를 가진 共產主義者이다. 特히 그는 延安 階級時代의 人間型을 重視했다. 延安時代의 人間型은 철저한 友愛·平等·同志愛·自己犧牲·全體에의 奉仕 등을 至高의 德으로 삼았다.

그러나 「文化大革命」期間에 毛澤東은 人民으로 하여금 既存體制에 대한 鬭爭을 強요하고 새로운 世代의 政治參與를 刺戟시켰다. 上部의 指示라고 질대로 무조건 服從할 것이 아니라 그 道理를 검토하고 討論하고 批判하며, 따를만한 道理가 있느냐, 없느냐를 自主主體的으로 판단해서 따르거나 反對하라고 力說하였다.¹⁵⁾ 맹목적 무조건 복종을 「奴隸思想」이라고 배격하고 既存權威를 위시한 모든 舊體制에 얽매이지 않는 「造反有理」의 創造的 反抗人을 毛澤東은 강조하고

31) 崔榮 “아시아의 近代化發展論에서 본 毛澤東思想의 比較研究”, 韓國政治學會, 合同學術大會, 論文集, 國文版(서울 1975). pp.104~24.

14) 李泳禧 “八億人의 敎師로 자처한 毛澤東” 對話 第71號. p.126.

15) 金河龍, 中共文化革命研究. (서울: 高大亞研. 1975). pp.193~206.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가 主張하는 「創造的 反抗人」도 모든 것에 대한 挑戰이기 보다는 다만 자신의 思想을 土臺로 既存의 모든 것을 批判하고 이에 立脚하여 새로운 것을 創造하는 人間을 뜻한다. 그리하여 毛澤東主義者들만이 中國革命의 完遂를 保障한다는 것이다.

2. 中共의 大衆操作의 思想的 基礎

1) 毛澤東의 矛盾理論

毛澤東의 矛盾理論은 그가 主張해온 不斷革命論의 思想的·理論的 基礎이다. 毛澤東은 〈矛盾論〉(1937年 8月)과 〈關於正確處理人民內部矛盾的問題〉(1957年 2月)의 두 論文에서 矛盾理論을 重點적으로 展開했다.¹⁶⁾

毛의 矛盾理論은 端的으로 中國이 이른바 社會主義를 거쳐 共產主義社會로 向하는 過程에서 생겨나는 모든 問題들을 敵對性的 矛盾과 非敵對 즉 人民內部的 矛盾으로 區分하고 이에 따른 解決方法을 提示하고 있다.

毛澤東의 〈矛盾論〉에 의하면 모든 事物의 矛盾의 法則, 즉 對立物 統一의 法則은 自然 및 社會의 根本法則이며, 따라서 思惟의 根本法則이다.¹⁷⁾

이 地球上의 모든 것의 變化는 그것이 自然界든 人間社會이든간에 內在해 있는 內部的 矛盾의 發展過程으로 毛澤東은 認識하고 있다. 人間社會의 變化는 주로 社會의 內的 矛盾의 發展, 즉 生産力과 生産關係의 矛盾, 階級들간의 矛盾, 새 것과 낡은 것간의 矛盾에 의하여 일어난다. 그러기에 矛盾없는 人間社會는 存在하지 않는다.

社會主義社會에서도 그 나름대로의 矛盾이 있다는 것이다. 社會主義社會의 各種組織 集團사는 勿論이고, 그들 組織, 集團의 內部 이틀테면 共產黨內部에도 矛盾은 있다는 것이다.¹⁸⁾

毛澤東은 모든 社會는 各己 質的으로 다른 固有한 矛盾을 하나 이상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矛盾의 解決方法 역시 千篇一律의 것이 아니라 質的으로 相異한다고 말한다.¹⁹⁾ 프롤레타리아 階級과 부르조아 階級的 矛盾은 社會主義革命의 方法으로 解決하여 人民大衆과 封建制度와의 矛盾은 民主主義革命의 方法으로, 植民地와 帝國主義와의 矛盾은 民族解放戰爭의 方法으로 解決한다. 그는 한걸음 더 나아가 이러한 그의 論理를 社會主義에도 적용하고 있다. 즉 社會主義社

16) Ibid., p. 16.

17) 毛澤東, “矛盾論” 毛澤東選集(第一卷), (北京:人民出版社, 1961). p. 278.

18) Ibid., p. 294.

19) Ibid., p. 296.

會에서의 勞動階級과 農民階級の 矛盾은 農業集團化와 農業機械化의 方法으로, 共產黨內部的 矛盾은 批判과 自己批判의 方法으로 解決된다는 것이다.²⁰⁾ 따라서 『過程이 變化하여 남은 過程과 남은 矛盾이 소멸되고, 새로운 過程과 새로운 矛盾이 發生하면 矛盾을 解決하는 方法도 따라서 다르게 된다』라는 毛澤東의 表現에서 보듯이 中國이 社會主義社會에 들어선다 할지라도 새로운 矛盾은 계속 發生하며, 이 모순을 해결하는 鬭爭 역시 그 方法이 相異할 뿐 끊임없이 계속된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毛의 理論은 다시 <關於正確處理人民內部矛盾的問題>라는 그의 論文에서 연결되었다.²¹⁾ 毛는 이 論文에서 共產主義政權으로 統一된 中共이 소위 社會主義段階로 移行하는 過渡期가 가지고 있는 矛盾의 診斷을 시도하고 있다. 毛澤東에 의하면 現在 中共에는 서로 性質이 根本적으로 相異한 두 가지 社會的 矛盾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²²⁾ 즉 하나는 人民과 敵사이의 矛盾이요, 나머지는 人民內部的 矛盾이다. 여기서 人民은 「社會主義의 現時點에서 社會主義建設의 事業에 同調하고 그것을 支持하며, 거기에 參與하는 모든 階級 階層 社會集團」을 뜻하는 것이며, 「社會主義革命에 抗拒하고 社會主義建設을 敵對視하고 이를 破壞하려는 모든 社會勢力과 集團」을 人民의 敵이라고 規定하고 있다.²³⁾ 그렇기 때문에 人民과 人民의 敵사이의 矛盾은 적대성의 모순이요, 人民內部的 矛盾은 비적대성의 그것이다.

따라서 毛의 <關於正確處理人民內部矛盾的問題>에 의하면 本質적으로 서로 相異한 두 種類의 矛盾은 그 解決方法에 있어서도 서로 다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²⁴⁾ 먼저 敵對性 矛盾에 對한 解決方法은 먼저 大字報를 活用하여 敵對性 矛盾을 暴露하여 人民群衆의 輿論을 조작하고 난후 暴力에 의한 強制的 方法을 使用하여 제거하는 것이다. 그러나 人民內部的 矛盾은 위의 方法과는 달리 批判과 自己 批判, 그리고 끊임없는 學習등에 의해 해결되어진다.

毛澤東은 人民內部的 矛盾의 解決은 어디까지나 「團結—批判—團結」이라는 大前提 아래서 合法的인 方法으로 展開되는 그러한 類의 解決方式이라고 말한다.²⁵⁾

그러나 毛澤東은 敵對性的 矛盾과 非敵對性的 矛盾에 대한 區別을 확실히 하지않고 어느정도의 伸縮성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人民과 人民의 敵사이의 矛盾도 올바르게 처리되면 人民內部的 矛盾으로 變質되어 「強制的 方法」이 아닌 「批判·說得·教育」에 의한 人間改造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시말해서 이 경우에 人民內部的 矛盾을 解決하는 方法이 適用될 수 있다는 것이다.

20) Ibid., p. 299. 「過程變化, 舊過程和舊矛盾消滅, 新過程和新矛盾發生, 解決矛盾的方法也因之而不同」

21) Stuart, R. Schramm, *The political thought of Mao Tse Tung*, Revised and Enlarged Edition (New York: Praeger, 1976). pp. 304~312.

22) Ibid., p. 305.

23) Ibid., p. 306.

24) Ibid., p. 307.

25) Ibid., p. 308.

한편 反對로 人民内部的 矛盾도 그 처리가 適切치 못하면 적대성의 矛盾으로 化할 수 있다는 것이다.²⁶⁾

毛澤東의 「矛盾理論」은 1957년에 始作된 「百花齊放·百家爭鳴」의 鳴放運動과 「反右派鬭爭」에서 具體化 됐다. 毛는 이러한 大衆運動을 通하여 人民内部的 矛盾을 해결하는 方法뿐만 아니라 敵對性 矛盾을 解決하는 무자비한 方法을 敢行했다.

이러한 그의 「矛盾理論」은 後에 文化大革命 過程을 通하여서도 더욱 더 정교하게 適用되었다.²⁷⁾

2) 毛澤東의 實踐理論

毛澤東은 그의 「實踐論」(1937年 3月)에서 人間的 生産活動을 기타의 모든 活動을 決定하는 基本的인 實踐으로 認定하고 있다.²⁸⁾ 自然界는 물론이고 人間과 自然의 關係 나아가서는 人間 相互關係의 認識過程은 주로 物質的인 生産活動을 通하여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人間社會의 生産活動이 낮은 段階에서 높은 段階로 發展하듯이 人間的 認識도 낮은 段階로부터 높은 段階로 즉 淺薄한 데서 부터 深奧한 데로, 一面的인 것부터 多面的인 것으로 進歩한다는 것이다.²⁹⁾

毛는 마르크스哲學인 辯證法的 唯物論에서 두개의 가장 뚜렷한 特徵을 들고 있다. 하나는 辯證法的 唯物論이 오직 프롤레타리아 계급을 위해 存在한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言明하는 데서 볼 수 있듯이 그의 階級性이요, 또 하나는 理論의 基礎는 實踐인 동시에 理論은 다시 實踐에 依存함을 強調하는 實踐性에 있다.³⁰⁾ 認識 또는 理論에 대한 眞否의 如否는 오직 客觀的인 社會的 實踐에 의해서 決定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그가 말하는 社會的 實踐이란 주로 物質生産活動, 階級鬭爭 그리고 科學實驗過程을 뜻한다. 毛澤東은 人間的 全認識過程을 나눈다. 우선 人間的 認識過程의 第一段階는 認識의 感性的 段階 즉 感覺 또는 印象의 段階라고 한다.³¹⁾

人間은 原來 實踐過程에서 처음에는 그의 눈·귀·코·입·피부등 感覺器管을 通하여 客觀的인 外界의 無類한 現象을 그의 頭腦에 反映하기만 한다. 이 段階에서 人間은 그 過程중의 各個 事物에 對한 現象과 各個事物의 一面, 各個 事物사이의 外部的 關係만을 볼 수 있을 따름이다. 그러기에 人間은 아직 各個 事物에 對한 概念을 形成할 수는 없다. 그러나 人間은 社會的 實踐

26) Ibid., p. 309.

27) 金河龍, op. cit., pp. 8~16.

28) 毛澤東, “實踐論” op. cit., p. 271.

29) Ibid., p. 272.

30) Ibid., p. 273.

31) Ibid., p. 274.

을 繼續함에 의해서 이러한 感性的 認識의 素材가 많이 蓄積되어 認識過程의 飛躍이 일어난다. 즉 여기서 人間은 事物의 本質, 全體性 그리고 事物사이의 内部的 關係까지도 把握하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段階에서 事物에 대한 概念이 形成되는 것이다. 이것이 認識過程의 第二段階인 理性的 認識인 것이다.³²⁾

이와같이 人間은 感性的 認識을 거쳐서 더 重要的 段階인 理性的 認識에 到達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毛澤東은 이것을 人間の 統一의인 認識過程이라고 부르고 있다. 뿐만아니라 感性和 理性的 兩者는 비록 그 性格이 다르다 할지라도 서로 分離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實踐의 基礎 위에 統一되어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누구든지 어떤 事物을 認識하려 한다면 그는 그 事物과 接觸하지 않고는 不可能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毛澤東은 『만일 당신이 革命에 대한 理論과 方法에 관해 알고자 한다면 당신은 革命에 直接 參加하여야만 한다. 모든 眞理는 오직 直接的 經驗에 의해서만 얻어진 다』³³⁾고 밝히고 있다.

以上이 이른바 毛澤東이 말하는 辯證法的 唯物論의 認識論이다. 그렇다면 人間の 認識過程은 感性的 認識에서 理性的 認識으로 發展되면 그것으로 人間の 認識運動은 完結된 것인가? 毛澤東은 이 段階에의 到達은 다만 問題解決의 絶반 밖에 이루지 못했다고 말한다.³⁴⁾ 毛는 마르크스哲學의 意義는 客觀的 世界的 合法則性을 認識하는데 그치른 것이 아니고, 이러한 認識을 가지고 能動的으로 世界를 改造하는데 있다고 말한다. 즉 마르크스主義가 理論을 重視하는 것은 理論이 行動을 指導하기 때문이다. 毛澤東에 의하면 認識은 實踐으로부터 始作되며, 이를 통하여 理論的 認識에 到達한 다음 다시 實踐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認識의 能動的 作用은 이러한 理性的 認識으로부터 革命的 實踐에 이르는 飛翔에서 다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實踐論의 末尾에서 그의 知行統一觀을 이렇게 밝히고 있다.

『實踐을 통하여 眞理를 發見하며 또 實踐을 통하여 眞理를 發展시킨다. 感性的 認識으로부터 理性的 認識으로 能動的으로 發展하며, 또 理性的 認識으로부터 革命的 實踐을 能動的으로 指導하여 主觀的 世界와 客觀的 世界를 改造한다. 實踐, 認識 또 實踐, 또 認識—이러한 形式이 無限히 循環 反復되어 個個循環에서의 實踐과 認識의 內容은 언제나 以前보다 한급 높은 程度에 到達한다. 이것이 바로 辯證法的 唯物論의 全體이며, 이것이 바로 辯證法的 唯物論의 知行統一觀이다.³⁵⁾

32) Ibid., p. 275.

33) Ibid., p. 276. 「要知道革命的論理和方法, 就得參加革命, 一切眞知都是從直接經驗發源的」

34) Ibid., p. 273.

35) Ibid., p. 278.

이러한 毛澤東의 「矛盾理論」과 「實踐理論」에 立脚하여 中國共產主義者들이 強調하는 것은 계속적인 思想學習과 階級鬭爭이다.

소련은 社會主義段階에서 階級鬭爭은 消滅된다고 主張하지만, 毛澤東은 社會主義段階에서도 階級간의 矛盾은 存在하기에 이에 대한 鬭爭은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毛澤東은 人民間的 모순이나 黨內的 不和는 올바른 思想學習과 階級鬭爭으로 수정될 수 있으며, 이의 重要한 手段으로 毛澤東 特有의 커뮤니케이션 戰略을 主唱하기에 이르른다.³⁶⁾

Ⅱ 中國革命과 毛澤東의 커뮤니케이션 戰略

1. 政治的 統制와 「小組」커뮤니케이션

中國共產主義者들은 「마르크스」主義理論을 實踐에 옮긴 最初の 國家인 蘇聯의 모델과 經驗을 導入하여 「暴力에 관한 強制」와 「宣傳커뮤니케이션에 의한 大衆操作」를 통해 「共產主義的 人間(새로운 中國人) 造型」, 즉 政治教化(Political indoctrination)를 實施했다. 그러나 그들은 初期부터 宣傳커뮤니케이션에 관한 레닌의 理論과 方法에 影響을 받았으나³⁷⁾ 中國이라는 地域的 特殊性에 맞추어 이를 소위 創造的 適用을 했다고 볼 수 있다. 中國 共產主義者들은 볼셰비키와는 달리 小組라는 小集團組織과 이 集團 成員간의 그룹커뮤니케이션을, 特히 매스·미디어와 對人媒體의 結合, 즉 미디어포름을 活用하는 特有의 中共式 모델을 創案했다. 그들은 이러한 모델을 成功的으로 實踐함에 의해 다른 國家의 指導者들이 했던 것 以上으로 大衆을 組織하고 動員할 수 있으리라 믿었다.

1) 批判과 自己批判(原語 批評與自己批評)

中國共產主義者들은 執權初期부터 大部分의 大衆을 비교적 少數의 個人들로 構成되는 「小組」

36) Frederick T.C. Yu, *Mass Persuasion in Communist China* (New York: Praeger, 1964) p. 137.

37) 레닌은 宣傳을 “마르크스·레닌主義를 널리 傳播시키며, 大衆에게 黨의 政策을 說明하고 大衆으로 하여금 이러한 黨政策을 能動的으로 支持하도록 그들에게 影響력을 發揮하는 것”이라고 定義하고 있다.

Antony Buzek, *How the Communist Press Works* (New York: Praeger, 1964). p. 17.

單位로 組織했다.³⁸⁾ 어떤 경우에 「小組」는 工場에 있어 作業班과 같은 特定한 組織의 末端관리 單位이고 심지어 一般的으로 學級이나 都市의 이웃사이처럼 公式的인 集團이 있지 않은 곳에도 「小組」는 組織되어 있다.

「小組」의 組織과 運營은 構成員 個人들의 自發性은 無視된 채 반드시 黨의 指示와 黨員의 統制下에 展開되었다.³⁹⁾ 이와 같은 「小組」는 農村, 學校, 工場, 炭鑛, 政府機關, 軍隊單位部隊, 都市의 住宅家等 어디에나 組織되었다. 一般的으로 中國에 있어 한 사람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小組」라는 組織集團을 社會生活의 單位로 삼고 있다. 「小組」로 組織된 中國 사람들은 그가 속해있는 組織이나 團體의 一員으로 公式的 活動(예를 들어, 作業, 軍事訓練, 또는 研究等)을 遂行함은 물론이고, 그 외에 日常生活의 많은 部分은 이 「小組」單位的 政治學習에 動員된다. 政治學習을 하는 동안 「小組」내의 사람들은 定期的으로 自己批判과 相互批判을 (原語 批評與自己批評)하게 된다.⁴⁰⁾ 사람들은 學習教材에 의거해서 自身の 思想과 行動을 스스로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자기의 잘못을 「小組」의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해야 하고 他人의 批判을 감수해야 한다. 또 사람들은 自己批判과는 對照的으로 다른 사람의 잘못을 批判해야 한다. 이러한 그룹 커뮤니케이션이 가지는 集團心理機制(group psychological mechanism)을 利用하여 中國共產主義者들은 사람들을 黨의 指示에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行動하도록」 統制하는 것이다. 슈만(schurman)은 「小組」안에서 行해지는 政治的 統制의 方法으로 相互批判과 自己批判過程을 다음과 같이 記述하고 있다.

「本質的으로 이 方法은 集團的 批判을 加하여 한 個人을 잠정적으로 集團에서 소외시킨다. 한

38) Godwin C. chu, "Group Communication and Developments in Mainland China", in Wilbur Schramm et al, ed. *Communication and Changes, The Last Ten Years-and the Next* (Honolulu: An Eastwest Center Book, 1976). p.119. 「小組」에 관한 一般的論議는 John Wilson Lewis, *Leadership in Communist China* (Ithaca; Connell University Press, 1963). Chapter 5 참조.

39) 호만스(Homans)는 小集團을 "서로 얼굴을 맞대고 직접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기에 可能的 數의 사람들이 모여서 비교적 오랫동안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인간의 集合體"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우연히 모여서 社交를 하는 集團은 小集團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함으로써 持續的이고 有目的的인 成員間의 相互作用, 즉 커뮤니케이션을 小集團形成의 基準으로 강조하고 있다. 뉴우콤(New comb)은 이에다. 成員들간의 共通된 規節(shared norms)과 相互不可分의 役割(interlocking roles)은 추가하고 있다. 「小組」는 黨으로부터 指示된 課題를 達成하기 위하여 8명에서 15명사이의 個人들이 모여서 黨員의 指導아래 一定한 組織構造를 가지고 서로 交互作用을 해나가는 一種의 小集團이라고 定義될 수 있다. 따라서 「小組」는 유형상 課題의 遂行을 위한 課題集團(task group)이며, 發歷過程에 따라, 人爲的으로 組織된 第2次的 集團(secondary group)이고, 成員의 參加意思의 自由가 없는 強制集團이며, 共產主義者를 造型하는 學習集團(learning group)으로 볼 수 있다. George C. Homans, *The Human Group* (New York: Harcourt, Brace & World, 1950), p.1. 참조.

40) Martin King Whyte, *Small Groups and Political Rituals in China* (Berkeley, 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4), p.3.

個人이 修正主義의 思考方式을 가졌거나 作業에 不充實했거나, 또는 다른 어떤 逸脫行爲로 因해 批判의 標的이 된다. 그는 同僚들로부터 빗발같이 批判을 받고나서 스스로 自身을 告發한다. ……이러한 目的은 個人을 改造하기 위한 것이다. 일시적인 격리가 끝난뒤 個人은 다시 集團에 統合된다. 個人이 가지는 이러한 經驗은 理論上으로 集團의 結束力과 效率을 유지하는 效果가 있다고 評價된다. 集團의 會合에서 다시 批判을 받고 따라서 困難한 處地에 빠질 수 있다는 可能性이 야기시키는 不安은 個人으로 하여금 集團에 歸屬케 한다.⁴¹⁾

集團壓力을 利用하여 共產主義 이데올로기를 注入하는 政治教化테크닉은 全人民의 思想改造에 의해 「繼續革命」을 實現하려는 毛澤東에 있어 政治的 操作의 效果의인 手段의 하나였다.

毛澤東은 이미 延安時代에 黨內鬭爭(intraparty struggle)의 操作上的 테크닉으로 集團內에서 批判과 自己批判이 주는 集團壓力의 特性을 잘 알고 있었다.⁴²⁾ 毛澤東의 觀點에서 볼때 첫째로 「小組」를 통한 政治學習은 黨의 指導者로 하여금 「政治學習目標을 위한 그룹의 壓力을 利用·操作케 하며, 理論과 理念의 學習을 集團生活에 있어서 實際的 行動指針과 結合」시키게 한다.⁴³⁾ 둘째로, 위의 批判方法을 통한 「小組」內의 政治學習은 大衆으로 하여금 共產主義的 價值觀과 態度를 받아들일도록 하는 구실을 한다. 셋째로, 「小組」는 共產主義規範體系를 위반하는 여러 가지 逸脫行爲를 하는 個人을 集團의 狀況에 들어가게 함으로써 共產主義規範을 內面化하는 機會를 제공한다. 넷째로, 「小組」集團 內에서의 自己批判과 相互批判은 物質的 刺戟方式이 한정된 中國에서 特異한 大衆動員方式이다. 다섯째로, 「小組」는 黨과 大衆을 連結해 주는 重要한 커뮤니케이션 媒體가 되고 있다.

2) 미디어포럼(media forums)

「小組」커뮤니케이션 過程에 있어 重要한 特徵은 미디어 포럼(media forums)이다. 小組는 政治學習時間에 定期的으로 매스·미디어 프로그램을 受容해서 그 內容을 討論한다. 매스·미디어와 對人媒體의 結合이야말로 大衆에 대한 中國 共產主義者의 宣傳煽動의 가장 效果的인 手段이다. 中國 共產主義者들은 延安時代로 부터 雜誌나 新聞 討論集團을 새로운 黨員에 대한 教化 내지는 기존 黨員에 대한 學習의 手段으로 使用해 왔다.⁴⁴⁾ 초기에는 「小組」에서 定期的으로 印

41) Franz Schurmann, "Organization and Responses in Communist China."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321 (Jan 1950).

42) Lowell Dittmer, *Liu Shao-Chi and the Chinese Cultural Revolution* (Berkeley, 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4) p. 315, p. 344.

43) 崔明, 現代中國의 政治(서울: 法文社, 1973) p. 217.

44) Everett M. Rogers, *Communication of Innovation* (New York: Free Press, 1971) 徐正宇譯 改革커뮤니케이션論(서울: 博英社, 1976), p. 253.

刷物이 朗讀되고 이를 中心으로 討論이 進行되었다.⁴⁵⁾ 그후 産業이 發達되면서 擴聲器와 같은 有線受信機가 全國에 보급되면서 「小組」단위의 廣播大會가 추가되어졌다. 有線受信機나 擴聲裝置는 대개 公共의 場所—「리크리에이션·홀」, 工場의 賣店, 人民公社, 讀書室—에 놓여있어 이러한 狀況下에서의 라디오 聽取는 「小組」단위의 集團의 經驗으로 行해진다. 이러한 狀況下에서 「小組」의 指導者는 放送에 解釋이나 批判을 加하고 集團討論을 指導함으로써 大衆을 煽動할 수가 있다. 文盲率이 높고, 廣大한 地域에 산재해있는 大衆에게 「小組」單位の 廣播大會는 中共의 宣傳커뮤니케이션의 한 重要한 現象이다.⁴⁶⁾

따라서, 大衆은 「小組」의 集團規範이 자신을 束縛하고 있다고 느끼면 느낄수록 이 規範에 바탕을 두고 있는 매스미디어의 內容을 거부하기는 어려운 것이다.⁴⁷⁾ 오히려 자신을 「小組」集團에 歸屬시켜 報償을 받으려는 心理的 動機가 作用하며, 미디어의 프로그램을 內面化함은 물론이고 黨이 意圖하는 行動의 變容을 積極的으로 보일 것이다.

2. 群衆路綫 커뮤니케이션

傳統的인 中國社會에 있어서 中國人에 內在한 普遍的 心性은 權威에 대한 服從性, 儒敎文化가 가지는 攻撃性的 억제등을 들 수 있다. 傳統時代에 있어서 中國人은 자신의 安全과 社會的 調和를 얻기 위하여 集團의 統制에 대한 저항력을 약하게 하고 개인으로서 보다는 集團의 構成員으로서 순응하고 「吃苦」함으로써 安住하려 했다.⁴⁸⁾ 따라서 治者와 大衆 사이에는 커뮤니케이션 缺(communiation gap)現象이 있었고, 大衆은 領導力과 政策으로 부터 疎外되어 있었다.

그래서 中國의 共產主義者들은 治者와 大衆사이의 垂直的 커뮤니케이션을 용이하게 하고, 黨과 中國人民사이의 統一的 關係(a unified relationship)를 수립하고 이를 發展시킴으로써 人民

45) 中共에 있어 新聞과 「小組」와의 關係에 대한 論議는 王玲玲, “中共報業概況” 匪情月報, Vol. 18, No. 9, 1976, p. 58 참조.

46) i) A Doak Barnett, *Cadres, Bureaucracy, and Political Power in Communist China*(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67). p. 271. 中共에서는 라디오를 集團聽取하는 것은 「廣播大會」라고 부른다.

ii) 辭聯의 放送制度에 있어 라디오에 대한 集團聽取에 관한 論議는 Alex Inkels, *Public Opinion in Soviet Russia: A Study in Mass Persuasio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51), p. 239.

47) Gerhard Maletzke, *Psychologie der Massen Kommunikation*(Hamburg: Hans Bredow-Institut, 1963). pp. 293~294.

48) i) Lucian W. Pye, “Mass Participation in Communist China: Limitation and Continuity of Culture,” in John M. H. Lindbeck, ed. *China: Management of a Revolutionary Society*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71). pp. 7~33.

ii) 吃苦란 人生의 苦로움을 삼키는 것을 뜻한다. 즉, 表現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大衆의 支持와 積極의 參與를 鼓吹시키기 위하여 群衆路線을 제창하기에 이르렀다.⁴⁹⁾

群衆路線은 毛澤東에 의해 延安時代 이래 創導된 大衆指導方法이다. 그는 언제나 黨은 人民大衆과 結合하고 人民大衆속에 浸透하여야 人民大衆으로 부터 遊離되지 않는다는 信念을 갖고 있었다.

毛澤東이 지닌 이러한 確信은 그의 어린 時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農村에서 보낸 幼年時節은 그로 하여금 農民들의 不滿에 대한 강한 同情을 갖게 했다. 비록 그는 青年時節을 都市에서 보냈으나 이미 그가 마르크스主義者가 되기 以前인 1919년에 熱情的인 人民主義(passionate populism)을 表明하기도 했다.⁵⁰⁾ 그러나 毛澤東이 人民大衆의 行動에 대한 信念을 공식적으로 나타낸 것은 그의 論文〈湖南農民運動考察報告〉(1927년 3월)에서 었다. 이 論文에서 그는 農民運動이야말로 어떠한 權力으로도 억누를 수 없는 힘을 가졌으며, 孫中山이 40년 동안 이룩하지 못한 것을 이 運動은 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農民協會가 權力을 爭取하는 方法에도 깊은 感銘을 표시했다. 農民에 대한 이와같은 그의 생각은 후에 創案한 群衆路線의 근본이 되었다.⁵¹⁾

群衆路線의 基本概念은 毛澤東의 論文〈關於領導方法的若間問題〉(1943년 6월 1일)와 〈組織起來〉(1943년 11월 27일)등에서 定式화된 것이다.

毛澤東의 群衆路線의 概念을 일관하는 基本原理는 첫째는 「人民大衆속으로 부터 나와 다시 人民大衆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毛澤東은 이에 대해 그의 論文〈關於領導方法的若間問題〉에서 다음과 같이 說明하고 있다.

『우리 黨의 一切의 實際的인 그 工中에서 正確한 領導는 반드시 人民大衆으로부터 나와야 하고 人民大衆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것은 곧 人民大衆의 意見(分散的이고 體系가 없는 意見)을 集約하고 研究를 해서 集約的이고 體系的인 意見으로 만들어 다시 대중속으로 들어가 그것을 傳達說明하여 大衆의 意見으로 만들므로써 人民大衆으로 하여금 그것을 堅持하고 行動化하고 또 대중의 行動속에서 이러한 意見의 옳고 그름을 精確히 檢證하도록 한다. 그렇게 한 다음 다시 大衆속에서 意見을 集約하고 또 人民大衆속으로 들어가 이 意見들이 堅持되도록 한다.』⁵²⁾

둘째는, 人民大衆속에 들어가 人民大衆에게서 배우는 것이다. 毛澤東은 人民大衆속에 들어가 그들에게서 배우는 實踐學習, 즉 「下放」의 原理에 대해 〈組織起來〉에서 다음과 같이 說明하고 있다.

49) Lowell Dittmer, op.cit., p.331.

50) James R. Townsend, *Participation in Communist China*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2). p.45.

51) 毛澤東 “湖南省農民運動考察報告” 毛澤東選集(北京:人民出版社), p.13.

52) 毛澤東 “關於領導方法的若間問題,” op. cit., p.2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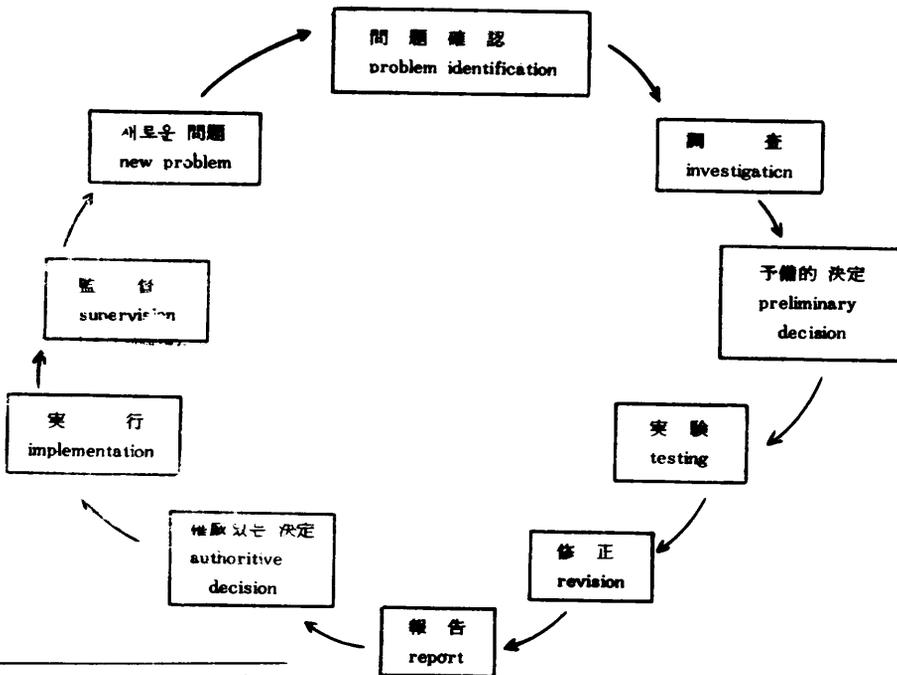
『우리는 人民大衆속에 들어가 그들에게서 그들의 經驗을 集約하여 그것을 더욱 훌륭하고 體系的인 原則과 方法으로 되게 한 後, 다시 그것을 人民大衆에게 알려주고, 또 그것을 實踐하도록 人民大衆에게 호소하여 人民大衆의 問題들을 解決해 줌으로써 人民大衆으로 하여금 解放과 幸福을 얻게 하여야 한다.』⁵³⁾

루이스(Lewis)는 群衆路線의 具體的 政治活動에서의 適用을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記述한다.

먼저 黨員은 問題를 確認하기 위하여 勞動者, 農民등 大衆속에서 그들의 分散되고 非體系的인 諸意見을 관찰한다. 그 다음 黨員은 分散된 意見과 情報를 集約하여 報告書를 作成하여 該當地域의 上級委員會에 제출한다. 上級委員會는 下級機關 코멘트와 더불어 黨원의 報告書를 接受하고 必要한 경우 指示文 혹은 教示文을 만든다. 이러한 指示文은 다시 되돌려 보내져서 人民大衆들이 자기 것으로 기꺼이 받아들여 이를 옹호하고 행동으로 옮겨진다.⁵⁴⁾

계속해서 루이스는 이 過程을 다음과 같은 循環表를 表示하고 있다.⁵⁵⁾

<表 1> 루이스의 群衆路線커뮤니케이션 循環過程



53) 毛澤東 “組織起來,” op. cit., p. 306.

54) John Wilson Cewis, *Leadership in Communist china*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63). p. 70.

55) Ibid. p. 72.

그러나 中國共產主義者들은 위와 같은 過程을 거쳐 나온 政策일지라도 人民大衆이 낮은 政治意識을 갖는 경우에는 이의 수행에 저항하게 됨을 인정한다. 이러한 때는 그들은 暴力을 쓰거나, 아니면 무작정 기다리지는 않는다. 그들은 大衆이 意識의이고도 自發적으로 行動에 나설때 까지 說得에 임한다. 大衆들은 黨員으로부터 政策에 대해 句句節節이 說明을 듣게되고, 의문점을 풀기위해, 또 잘못된 意見을 고치기 위한 討論會를 거침으로써 비로소 政策에 대한 理解가 되고 이의 수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以上에서 보는 바와 같이 群衆路線은 먼저 人民大衆을 새로운 政治커뮤니케이션 過程의 動員시킨다. 그러나 이와같은 動員은 어디까지나 政策遂行에 大衆의 힘을 利用하기 위한 것이자, 政策에 대한 大衆의 統制를 위한 것은 아니다.

둘째로, 중국공산주의자들은 群衆路線을 통해서 大衆과 黨사이의 統一的 關係를 유지하기를 원한다. 따라서 群衆路線의 實際에 대한 適用인 중국에서의 政治活動은 大衆에게 社會主義建設을 위한 共產主義的 價值觀規範 그리고 思想들을 內面化시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群衆路線 커뮤니케이션은 人民大衆에게 積極的인 政治的 役割을 부여함으로써 黨은 人民大衆을 毛의 絶對的인 統制와 指導下에 있게 한다.⁵⁶⁾

3. 大衆政治運動과 大字報

위에서 지적했듯이 毛澤東을 비롯한 중국 공산주의자들은 「무진장한 革命的 熱意」와 「政治意識」을 重視했다. 毛澤東은 社會主義建設을 最大의 速度로 추진하고 生産을 비약시키는 問題는 오직 그들이 大衆을 共產主義的 人間으로 改造하는데 달려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중국 공산주의자들은 人民大衆을 國家建設을 위한 諸計劃에 적극 참여시키기 위해 政治敎化와 大衆動員의 方法으로 群衆路線에 立脚한 大衆運動(原語「群衆運動」)을 展開해 왔다. 大衆運動은 共產黨과 大衆사이의 가장 效果的인 群衆커뮤니케이션 채널로도 使用되어 왔다.⁵⁷⁾

大衆運動은 어떤 特定の 目標를 達成하기 위한 組織的이며, 計劃的인 一聯의 行爲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中國共產黨中央委員會는 大衆運動의 전개여부를 決定한다. 그리고 나서 黨은 이 運動을 이끌어 나갈 特別指導部를 構成한다. 이 機構에 의해 大多數의 사람들이 高度로 可視的이고, 強裂하며 集中的인 運動에 動員된다. 하나의 運動이 끝나면 特別指揮部는 해체되고 모든 사람들은 다시 日常生活로 돌아간다. 그러나 얼마 안있어 다시 새로운 大衆運動에 參加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거의 모든 中國人들은 反革命分子의 打倒를 외치는 政治鬭爭에서 심지어는 「파

56) Townsend, op. cit. p.74.

57) Alan. P. L. Liu, *Communication and National Integration in Communist China* (Berkeley, 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1). p.87.

리와 참새를 때려잡자], 에 이르기까지 그칠줄 모르는 大衆運動에 動員된다.

따라서 大衆運動은 國家建設을 위한 중국 공산주의 자들의 戰術이며, 독특한 중국공산혁명스타일의 一部이다. 그들의 표현을 빌린다면, 「大衆運動」은 社會主義建設의 總路線을 實現시키는 구체적이고 본질적인 手段인 것이다.⁵⁸⁾

일찌기 鄧小平은 이를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우리나라에서 大衆運動은 社會主義革命과 建設에 있어 중요하다. 廣範圍한 大衆運動은 社會主義革命이 보다 더 완벽하면서도 빨리 수행됨을 보장하고 있다. ……우리가 빠르게 그리고 成功的으로 農業, 工業, 商工業에 있어 社會主義的 轉換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大規模의 大衆運動을 통해서이다. 또한 政治와 思想鬭爭 속에서 社會主義革命의 偉大한 승리를 거둔것도 大衆運動을 통해서이다. 生産力의 發展을 저해했던 生産과 上部構造의 낡은 관계를 타파하고 새로운 관계를 形成하여 生産力의 증대를 가져온 것도 이와 같은 大衆運動下에서이다.⁵⁹⁾

일반적으로 大衆運動은 目的에 따라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攻擊對象으로서의 「人民과 革命的 敵」을 打倒하고 「資本主義的 既存 社會體制」를 除去하는 大衆鬭爭形式의 大衆運動이 있다.⁶⁰⁾ 예를 들어 土地改革運動에 있어 「地主階級的 打倒」라든지 大鳴大放運動에 이어 展開된 反右派鬭爭에 있어 「修正主義의 打破」등이 있다. 둘째로는 生産力을 증가시키기 위한 주기적인 大衆運動이 있다. 生産高를 비약적으로 높이고 勞動組織과 生産過程을 개선하고 生産機構와 造作方法을 개선하는 일을 大衆들의 상호간의 경쟁을 통하여 수행해 나간다는 58年の 大躍進運動이 그 例이다. 셋째로는 定期的인 「學習」프로그램에 덧붙여 전개되어온 思想과 文藝整風運動등이 있다.⁶¹⁾

大衆運動에 대한 중국공산주의자들의 宣傳커뮤니케이션 戰術은 一定치가 않다. 그러나 그들은 合理的이며 일관성 있는 進行패턴에 따라 運動을 展開한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大衆運動은 4단계로 나눌 수 있다.⁶²⁾

첫번째가 注意 換起단계이고, 두번째가 이데오르기의 準備期, 세번째가 行動단계, 네번째가 運動전반에 대한 評價단계이다.

58) Frederick T.C. Yu, "Campaigns, Communication, and Development in Communist China" in Wilbur Schramm and Donald F. Roberts, *The Process and Effects of Mass Communication*(Chicago: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71). p.837.

59) Teng Hsiao-Ping, "The Great Unity of the Chinese People of the World," in *Ten Glorious Years 1949-1959* (Peking: Foreign Language Press, 1960). p.92~93.

60) Liu, op. cit., p.88.

61) Ibid.. p.89.

62) Yu, op. cit., pp.844~847.

1) 注意 換起段階

먼저 北京에 있는 中國共產黨 中央委員會가 大衆運動에 대한 전개 여부를 決定한다. 이 단계에서는 特別指揮部の 組織問題와 特殊黨員의 訓練, 攻擊등이 定해진다. 그리고 나서 大衆에게 이 運動을 널리 알리게 한다. 中國共產主義者들은 이 단계에서 宣傳을 통하여 大衆들로 하여금 特定한 運動에 내포되어 있는 問題點에 대하여 理解하게 되고, 그 運動의 必要성과 그 運動에 있어서의 敵對勢力을 認識케 하고, 그릇된 觀念을 제거하고 그 運動에서 기대하고 있는 成果를 認識케 하였다.⁶³⁾

이와같은 目的을 가지고 매스·미디어와 大衆組織 그리고 都市와 地方의 黨員들이 이 運動을 大衆에게 說明하고 「小組」단위로 라디오를 듣게 하고 新聞을 읽게 한다. 省單位로 訓練을 받은 特別要員들이 都市와 地方에 파견된다.

2) 이데올로기의 準備期

많은 集會가 있게 된다. 集會에서 이 運動과 관계되는 黨의 指示, 중요한 演說文, 社說등을 學習하며, 이 過程에서 대중은 자신의 과오를 發見하게 되고, 他人에 의해 자신의 결점이 지적된다. 또 他人에 대한 告發도 있게 된다. 여기서 特別要員은 發表者들에 대해 그들이 가지고 있는 思想에 올바른 解釋을 가한다. 이 過程을 「鬭爭」이라고도 부른다.

여기서 中國 共產主義者들은 中國 特有의 大字報가 「鬭爭」에 있어 적절한 미디어임을 착안하기에 이르렀다. 特別히 「百花齊放·百家爭鳴」運動時期부터 그들은 批判과 自己批判을 통한 鬭爭의 手段으로 大字報를 積極적으로 活用하였다.⁶⁴⁾ 「人民의 敵」을 聲討하거나 批判하는 大字報가 나붙으면 우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먼저 충격을 받게 한다. 이어 大字報를 中心으로 그룹이 形成되고 그러면 이미 造作선정된 煽動家가 나서서 大字報의 內容을 부연, 說明하면서 黨에 의해서 指示된 方向으로 人民大衆들의 態도와 行動을 誘導하는 것이다. 물론 누구든지 大字報를 쓰게 하며, 이에 對한 討論에의 參與, 그 자체가 곧 鬭爭인 것이며, 곧 人民의 權利이자 義務로 까지 확대시켜 놓았다.

3) 行 動 段 階

大衆運動에 있어 클라이맥스는 바로 이 行動段階이다. 大衆들의 內面에 「敵」에 대한 敵對感

63) *Ibi.d.*, p. 845. 趙在璠 宣傳輿論(서울法文社, 1977). p. 103. 재인용

64) Charles R. Wright, *Mass Communication: A Sociological Perspective* (New York: Randon House, 1975). p. 140.

이 고조되고, 일종의 히스테리가 造成되면 實際的인 行動이 일어난다. 土地改革運動時에는 大衆은 소위「惡德地主」를 告發하고, 이 地主는 死刑을 당했다. 大躍進運動時에는 대중이 더욱 더 生産에 박차를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運動全般에 관한 評價段階

여기서는 아직도 「敵」이나 解決해야 할 문제가 남아있나를 살펴본다. 또 運動에 임한 大衆의 思想檢討가 要員에 의해 있다. 新聞을 비롯한 각종 매스·미디어는 이 運動의 成功事例를 보도한다. 그러므로써 일단 大衆運動은 마무리된다.

大衆運動의 方式은 20세기 全體主義가 흔히 利用하였던 權力操作(power manipulation)의 方法이 있지만, 中國共產黨만큼 大衆運動方式을 철저히 利用한 경우는 드물다. 물론 中共指導者들은 大衆運動이 根本的으로 全體主義體制에 있어서 매우 便利하고 有用한 여러가지 特性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의 觀點에서 볼 때, 大衆運動은 몇가지 長點을 가지고 있다. 첫째로, 民主主義體制가 가지는 合理的 節次에 의한 統合方式과는 달리 非合理的인 暴力마저도 大衆의 이름으로 正當化할 수 있는 폭넓은 伸縮性과 융통성을 가지고 있다. 民主主義 國家에서 政府가 어떤 政策을 作成, 施行하고자 하면 먼저 法律을 制定하고 그것을 집행하는 法的 定式에 의한 節次를 밟는 것이 常例이다. 이 경우 人權을 존중해야 한다는 制約뿐만 아니라 法律自體의 基本原理에서 야기되는 여러가지 制約을 받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革命은 모든 것을 合法化한다는 超法律的인 大前提下에 展開되는 大衆運動은 指導者로 하여금 大衆의 이름으로 無制限에 가까운 광범위한 權力을 行事할 수 있게 한다.⁶⁵⁾

둘째로, 大衆運動은 大衆의 自發的이며, 能動的인 推進力을 利用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大衆을 動員하고 그들의 內面에 긴장상태와 함께 熱狂狀態를 造成함으로써 그들에게 강력한 行動力을 갖게 할 수 있으며, 그러므로 指導者는 그의 意圖하는 바의 目標을 大衆의 힘으로 達成할 수 있다는 利點을 갖고 있다. 파이(Lucian pye)는 相互批判과 自己批判(mutual criticism and self-criticism)을 통해 展開되는 大衆運動이 人民大衆에게 주는 心理的 恐怖感과 不安感을 다음과 같이 說明하고 있다. 즉, 人民大衆이 이데올로기 教育을 大衆運動을 통해 받을 때 그들은 소외되어 고립되어서는 안된다는 心理的 重壓感으로 말미암아 이 運動에 積極 參與하게 된다는

65) 중국공산주의자들이 大衆을 組織하고 動員하는 活動의 중요성을 公的으로 認定한 예는 수없이 많다. 毛澤東은 일찌기 그의 論文〈關心群衆生活, 注意工作方法〉(1934년 2월 27일)에서 부터 大衆動員에 관해 언급했다. 「我們現在的中心任務是動員廣大群衆參加革命戰爭」 毛澤東選集 第一卷(北京:人民出版社, 1961). p. 131.

것이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中國에 있어 새로운 支配勢力과의 一致내지는 合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重要하다고 느끼는 것이다.⁶⁶⁾

세째로, 大衆運動은 이 運動의 對象이 되는 소위 「人民의 敵」을 心理적으로 고립시키고 公開적인 批判을 받는 「人民의 敵」은 바로 그 자리에서 이에 대한 자기 비판을 하지 않고는 견딜수 없는 壓迫感과 위협을 느끼게 된다.

네째로, 大衆運動은 黨機構와 行政組織은 물론이고, 新聞과 라디오를 비롯한 매스·미디어, 그리고 모든 社會團體와 集團을 指導者가 意圖하는 特定の 目標의 達成을 위해서 結集시킬 수 있는 利點도 가지고 있다.

이처럼 大衆을 組織하고 動員하여 各種의 群衆大會를 개최하고 거기서 敵을 糾彈하고 그들 大衆의 鬭爭을 통해서 人民과 革命의 敵을 打倒하고 障礙要素를 除去하는 大衆鬭爭의 方式인 大衆運動을 통해 毛澤東은 자신의 目標을 達成하려 했다.

「브르조아反動思想」에 대한 大衆鬭爭과 批判運動으로서의 大衆運動에서 人民大衆을 組織·動員하고 人民의 政治的 覺醒을 促求했던 重要的 미디어는 무엇이 있는가?

毛澤東은 人民大衆을 說得케 하고 自身の 意圖대로 人民大衆을 組織動員하는데 效果的인 미디어로 中共 特有的 「大字報」를 選擇했다. 이러한 毛澤東의 「大字報」選擇은 大字報가 갖는 特異한 性格 때문이 있다. 즉 첫째, 大字報는 製作의 容易性을 가진 미디어라는 點이다. 大字報의 製作은 다만 붓과 먹 그리고 종이가 必要할 뿐이며, 누구든지 大字報를 쓸수가 있고, 누구에게나 傳達될 수가 있다는 有利한 點이 있다. 그것은 어느때든지 쓰여질 수 있으며, 어느곳에든 揭示할 수 있다는 有利한 點이 있다.⁶⁷⁾ 세째로 大字報는 前述한 바 있듯이 大衆運動展開에 있어 내용은 물론 매체자체로써는 煽動力과 呼訴力이 높아 效果的이라는 것이다.

毛澤東은 왜 大衆運動에 있어서 重要的 鬭爭 武器로 大字報의 活用을 強調했는가? 이는 毛澤東 自身이 全國的인 大衆運動에 있어서 新聞·放送과 같은 매스·미디어는 人民의 注意를 換起시키는 역할 밖에 하지 못한다는 事實을 認識한데 있다.⁶⁸⁾ 더구나 毛澤東의 認識 가운데 중요한 部分은 人民大衆을 단순히 그러한 運動에 動員내지 參與하게 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運動이 人民들에게 內面化와 더불어 內面化된 思想性的인 具體的인 實踐에 있는 것이다. 즉, 「브르조아反動思想打倒」라는 整風運動過程에서는 全人民이 毛澤東思想을 實踐의 절대적 基準으로 삼고 모든 反毛澤東思想的인 것을 批判·鬭爭·清算·改造하는 것을 目標로 하고 있으

66) Pye, op. cit., p. 19.

67) Frederick T. C. Yu, *Mass Persuasion in Communist China*(New York: Praeger, 1964). p. 120.

68) ① Dittmer, op. cit., p. 319.

② Victor C. Falkenheim, "Political Participation in China," *Problems of Communism*, May June, 1978. Vol XXVII. p. 23.

며, 또한 毛澤東主義者들은 이를 위해서는 다른 어떠한 미디어보다 「大字報」가 內面化 速度가 빠르며, 表出形式이 直接的이며, 또한 群衆心理操作에 效果의이라는 結論을 얻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人民各者가 직접 「大字報」를 통해 「反革命的인 것」을 批判하고, 討論하고 또한 「大字報」의 攻擊對象인 사람도 역시 大字報를 통해 自己批判을 함으로써 자신을 改造할 수 있기 때문이다.

Ⅱ 結 論

毛澤東主義者들은 歷史形成에 있어 人間精神力 내지는 意志의 重要性을 강조하고 中國革命은 全人民의 精神力에 따라 그 成功여부가 달려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같이 毛澤東主義者들은 언제나 主意主義(voluntarism)와 人民主義(populism)의 개념을 獨特하게 表面에 내세우고 있다. 이러한 主意主義의이며, 人民主義의인 傾向은 小數의 관료, 지식인, 엘리트의 役割을 輕視하고 大多數인 農民의 歷史的 役割을 重視했던 毛澤東의 初期革命經驗에서 나온 것이라 볼 수 있으며, 또한 이러한 傾向은 本源의으로는 傳統的이고, 儒敎思想에서 유래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毛澤東主義者들은 더 나아가서 모든 人民들은 그들의 階級的 背景과는 상관없이 共產主義者로 改造할 수 있다는 信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觀點에서 볼 때 毛澤東主義者들은 大衆動員이나 大衆的인 參與를 통해서 不斷히 낡은 舊時代의 遺習과 殘滓를 극복하고 社會主義革命과 建設을 同時에 追求하는 「社會化 또는 再社會化(resocialization)」를 즉 大衆操作(mass manipulation)을 實施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毛澤東은 일찌기 中華 소비에트 共和國 時期에 「大衆 속으로부터 나와 다시 大衆속으로 들어가며 大衆으로부터 배운다」는 이른바 群衆路線의 개념을 大衆操作의 기본적인 틀로 提示했다. 즉 江西소비에트 時期 毛澤東은 革命根據地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하여 全人民을 動員하고 궁극적인 革命的 完成을 위하여 大衆의 潛在力을 發揮할 수 있게 하는 特有的 커뮤니케이션形態를 發展시켰던 것이다.

따라서 中國共產黨은 執權過程에서는 물론 49年以後의 統治過程에서 反革命殘滓를 一掃하고 知識分子의 思想을 改造하여 全人民을 고도로 改造시키고 共產主義이데올로기로 무장시키는 政治學習을 遂行하기 위하여 群衆路線에 立脚한 大衆操作에 주력했다.

그러면 毛澤東은 「全人民의 思想改造」를 위한 大衆操作 推進過程에서 어떠한 커뮤니케이션戰

略을 展開했는가?

中國 共產主義者들은 初期부터 커뮤니케이션戰略에 관한 소련의 理論과 實踐過程이 모델이 되긴 했으나 中國이라는 特殊性에 맞추어 이를 소위 「創造的 適用」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毛澤東은 레닌과는 달리 大衆操作의 커뮤니케이션方法和 集團壓力을 利用하는 「小組」커뮤니케이션을 活用했다. 大衆은 비교적 小數의 個人들로 構成되는 「小組單位」로 組織하고 이 集團 成員간의 批判과 自己批判을 조장하고 政治學習時間에 매스·미디어 프로그램을 受容해서 그 內容을 討論케 하는 미디어포럼(media forums)을 철저하게 實施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毛澤東이 使用한 커뮤니케이션패턴으로 重要的 것은 群衆路線커뮤니케이션과 이에 立脚한 大衆政治運動이다. 이것은 延安時代 以來로 中國共產黨의 獨특한 大衆指導方式인 毛澤東의 群衆路線식 動員樣式과 不可分의 關係를 맺고 있다.

毛澤東은 「위로부터 아래로」인 동시에 「아래로부터 위로」라는 양면적인 性格을 띤 群衆路線 커뮤니케이션을 제창했다. 이것은 治者와 大衆사이의 垂直的 커뮤니케이션을 용이하게 하고 共產黨과 人民大衆 사이의 統一的 關係를 수립·發展시키는데 있다.

특히 중국 공산주의자들은 「黨의 指導와 광범한 大衆運動과의 結合」을 굳게 하고, 人民의 參與와 熱意를 極大化하기 위해 群衆路線커뮤니케이션에 立脚한 大衆政治運動을 展開해던 것이다. 따라서 大衆政治運動은 中共에 있어 指導者와 大衆 사이의 가장 效果的인 커뮤니케이션 채널이며, 毛澤東思想으로 全人民을 改造하는 學習場이기도 했다.

그러나 毛澤東의 政治優先의 「繼續革命路線」은 그의 後繼者들 一華國峰, 鄧小平體制一에 의해 수정이 가해지고 있다. 그들은 금세기말까지 中共經濟를 선진공업국수준에 올려 놓는 四個 現代化를 강력히 推進하기 위해 實用主義의 接近을 채택하고 있다. 그래서 毛澤東과는 달리 政治보다는 經濟를, 價值觀의 變革보다는 生産을, 平等主義보다는 專門化를, 精神主義보다는 物質的 자극을, 높이 評價하는 「實事求是」를 외치고 있다. 심지어 鄧小平은 「社會主義的 人間에로의 改造」를 위한 극단적인 大衆政治運動形態인 「文化革命」이 얼마나 中共의 經濟發展을 저해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毛澤東의 大衆操作에 관한 커뮤니케이션戰略은 일단 變化가 加해지고 있음을 確認할 수가 있다.

먼저 大衆操作의 目標에 修正이 오고 있다. 이제 上部構造와 生産關係가 經濟發展에 決定的인 役割을 한다는 「政治先行」式 論理는 신랄한 비판을 받고 있다. 그 대신 經濟基礎와 生産力이 경제성장의 原動力이 되고 있다고 鄧小平은 主張하고 있다. 따라서 毛澤東時의 大衆操作의 機能—毛思想의 注入을 통해 人民을 극도로 組織하고 動員하는—은 이제 修正이 加해지게 되는 것이다.

둘째로, 群衆路線커뮤니케이션과 大字報를 통한 大衆政治運動에 대한 統制와 制限이 상당히

加해 질 것이다. 鄧은 자신의 政策을 正當·正統化하기 위해 毛와 毛思想에 대한 批判을 위한 大衆操作을 展開할 必要가 있다. 그러나 文革初期에 絶頂에 達했던 무절제 무제한적인 群衆路線式 大衆操作은 피할 것이다. 왜냐하면 과거처럼 소위 「人民内部的 矛盾」을 지나치게 폭로케 하면 鄧의 體制가 도전받을 위험이 있고 「4個近代化」 政策에 차질을 줄 혼란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鄧은 大衆操作方法에 있어서는 철저한 統制를 加할 것이 分明하다.

세째로 大衆操作을 위한 媒體와 過程을 制度化하고 多樣化할 것이다. 지금까지 展開해 온 全國的인 大衆政治運動은 점차 퇴색되어 갈 것이고, 家庭과 學校, 그리고 經濟發展에 따라 名種 매스·미디어—특히 텔레비전과 영화등, 전자매체—를 活用하는 大衆操作手段이 使用되어질 것이다. 결국 이러한 경향은 鄧體制下의 中國共產主義者들이 否定한다 할지라도 大衆操作에 관한 蘇聯式 모델을 따라감을 뜻한다.

—Resume—

Mass Manipulation and Communication Strategy in Communist China.

Ko Sung-joon

Contemporary communism, as a perverted form of modern totalitarianism, finds its ultimate rationale for its existence in the support of the people and loyalty of the masses to the communist regime. The process of implantation of communism to underdeveloped areas of the world and generally considered as two types, namely, one is through the necessity and pressure of endogenous factors and the other exogenous factors. The typical example of the former can be found in the case of Chinese and Yugoslavia's Communism and the latter in the case of North Korea.

Despite the obvious differences between two types of communism, they share one common element in that they both need societal mobilization and to make this possible they consider it an urgent task to manipulate political symbols. They need to change society because communism in underdeveloped areas does not exist and prosper in the Utopia as Marx Prophesied, but in the economically unpropitious conditions from which they must transform society into Utopia. Societal mobilization is needed just in the necessity as a means to accomplish this Utopia. The necessity of mobilization, however, assumes its significance more in the society where communism came from without rather than in the society where Communism came from within because resistance of the people is stranger in the former than in the latter form of society.

To the Chinese Marxists, the creation of the "New Communist Man" is a prerequisite of the building of the "New Socialist State." They believed that to achieve this goal they had to reform the "thought" of people by Mao Tes-Tung thought. So they depended on shrewd manipulation of coercive and persuasive communication for political indoctrination.

This thesis attempts to trace and analyze the communication process--a description of alternative patterns of media use, and media organizations as reflections of fundamental political strategy-in Communist China. By considering Mao's basic conception of human nature and his attempts at mass persuasion, this paper represents an attempt to understand his extraordinary system of mass persuasion. This paper consists of three sections:

(1) A brief discussion of the theoretical and ideological foundation for the mass manipulation (political indoctrination) in communist China: (2) an analytical description of Mao's Communication Strategy in mass manipulation: (3) an descriptive analysis of the structure and functions of Mao's Communication System.